

【특집: 사료산업 50년 회고와 향후 산업방향 제시】

신규공장 건설이나 생산능력 늘리는 일은 신중해야



문철명

현대사료(주) 대표이사(창업)
한국사료협회 부회장(15년)
한국사료협회 원료구매위원장(14년)

사료산업과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지리한 장마가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청명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한국사료협회에서 발행하는 '사료지'에 특집으로 「사료산업 50년 회고와 향후 사료산업 방향제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유축농가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같은해 7월 중앙사료(정준호), 신한제분(김용성), 대한사료공업(김흥기), 제일산업(이용구)등이 「한국배합사료공업협회」를 설립하고 이후 5월에 지금의 「한국사료협회」로 개칭하였습니다.

올해가 마침 한국사료협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지난 7월 5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배합사료의 생산은 1962년도 처음 통계가

나온 이후 1967년 10만톤이었던 생산량이 10년만인 1977년에 190만톤, 2010년 현재 1,750만톤으로 1967년 대비 170배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1961년~1966년까지는 사료산업 도입기, 1967년~1975년은 사료산업 형성기, 1976년~1985년은 사료산업 성장기, 1986년~현재는 사료산업 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배합사료 생산량>

(단위: 천 M/T)

연 도	생 산 량
1967	107
1977	1,900
1997	15,850
1998	14,153
2007	16,148
2010	17,53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9월 IMF 위기로 인해 배합사료가 1998년에는 전년대비 11%나 줄었고, 이 물량을 회복하



는데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배합사료 종류별 생산량은 1981년 까지는 양계사료 52.8%, 양돈용 21.8%, 낙농용 13.5%, 비육용 11.9% 이었던 것이 2011년 7월 현재 양계용 31.8%, 양돈용 26.1%, 낙농용 7.1%, 비육용 26.1%, 기타 8.9%로 양계용, 낙농용은 감소한 반면 양돈용, 비육용, 기타 사료는 증가 하였습니다.

배합사료 공장수는 1984년도 기준으로 한국사료협회 산하 55개사(과거 배합사료업체 68개사), 축협중앙회 직영 3개사, 지역축협 11개사 이었던 것이 현재는 한국사료협회 소속 41개사(65개 공장), 농협 23개 공장, 비회원 공장 11개 등 모두 합쳐서 99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 중요한 국외 사건으로는

1) 1974년 말 옥수수 수입가격 폭등사건
미산 옥수수 수입가격이 C&F 120불에서 180불로 50% 상승한 적이 있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옥수수 안정기금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2) 1984년 말에 발생한 600만불의 L/C 사기 사건

홍콩소재 무역회사로 부터 중국산 옥수수 5만톤을 구매하였는데 무역회사와 홍콩은행이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물품대금을 인출한 사건이었는데 김,신,유 국제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5년만에 소송비용과 원금을 회수하게 되어 승소한 사건이며 이로 인해 한국사료협회에서 공동 L/C를 열었던

것이 회사별로 각자 열게 되었으며 비상근 회장에서 상근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3) 1998년 10월에 일어난 I.M.F(국제통화 기금)사건

환율이 860원대에서 2,100원대 이상 한달 내에 급등하였고 7~8개 사료공장이 도산내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심각했던 일은 국가신용이 떨어져서 도입원료의 L/C(신용장)을 열수 없어서 3개월 후에는 가축이 다 굶어 죽을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4) 2008년도 미국발 모기지론(mortgage loan)사건

2008년 9월 미국의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쳐 환율이 960원대에서 1,500원까지 오르내리며 6개월 이상 끌어 USANCE 자금을 쓰는 배합사료공장이 모두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났습니다.

■ 국내 사건으로는

1) 1978년도 감사원의 사료공장 감사 건
배합사료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전국 사료공장에 감사원 직원 3인, 국세청 직원 1인, 4인 1개조로 약 1개월간 감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외형에 비하여 시설이 낙후되었다 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시설 현대화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 하겠다 하여 그때부터 자동화시설이 도입되었고 한때 생산시설이 과잉되어 공장들이 도산되거나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사료의 부가세 영세율 건

국제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양축가 단체와 한국사료협회가 지속적으로 행정당국에 건의하여 1997년 7월 배합사료의 부가세 영세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3)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 건

설상가상으로 가금류의 AI까지 발생하여 소와 닭, 오리는 5%이내, 돼지는 30%이상 살처분 되어 2011년 7월 현재 종돈, 종계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도 입식이 되지 않아 전년 동기대비 배합사료량이 12%나 감소하였고 누계대비 94%로 6%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관세청의 관세추징사건, 하역비 인상 사건, 사료회관 토지증여세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습니다.

향후 사료산업은 1995년 1월 UR협상으로 시작하여 W.T.O (세계무역기구) 4차 회의에서 합의된 D.D.A(도하개발어젠다) 다자간 무역협상이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

운데 2004년 4월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후 한·EU F.T.A가 발효되었고 한·미 F.T.A가 발효 준비중에 있어 우리 축산물이 세계 여러나라와 자유경쟁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2012년 부터는 배합사료 생산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길이 없습니다.

우선 정부는 향후 10년간 축산업에 집중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 양축업자들은 시설개선, 질병예방 및 사육기술도입 등으로 사료효율을 높여서 생산비를 낮추어야 할 것이며 사료업자는 축산물 생산 비중 약 55% 이상을 차지하는 배합사료를 더욱 노력하여 양질의 사료를 보다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얼마나 낮추어 수입되는 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배합사료 공장들은 신규공장을 건설하거나 생산능력을 늘리거나 하는 일은 2~3년 두고 본 후에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 초 일시에 생산능력이 늘어나 사료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빠른 시간내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기다려봐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

